

탈식민주의 이론과 세계문학

본 집담회의 목적은, 사이드(Edward Said), 바바(Homi Bhabha), 스피박(Gayatri Spivak) 등, 주요 탈식민주의 이론가가 제공해주는 관점을 통해, 영국 본토는 물론, 영연방, 심지어 이탈리아에서 나온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 작품을 관통하는 탈식민주의 주제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집담회에서 ‘탈식민주의’라는 관점은 식민주의/제국주의를 거치면서 주류를 형성한 서구중심적이었던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난, 균형 잡힌 시선을 뜻한다. 따라서 본 집담회는 식민주의/제국주의 시대가 지났음에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서구중심적인 시각에서 탈피하는 것은 물론, 이른바 지구화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소홀하게 다루어진 인종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문화의 측면에서 새로운 미래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본 집담회는 굴지의 탈식민주의 이론가의 주장을 두루 살피는 동시에, 그 적용 대상을 특정 시기, 지역, 언어에 국한시키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세계 문학’이란 개념에 걸맞은 작업을 수행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18세기 영국 극작가, 20세기 영국 소설가, 남아프리카와 이탈리아 출신 최근 작가 등이 포함된다. 이렇듯 다양한 관심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이론과 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가운데, 각자의 개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식민주의/제국주의라는 공통의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자평하고자 한다.

사실 이 집담회는 8년여에 걸쳐 진행된 공부 모임의 연장이다. 2013년 여름방학 이후 수 년에 걸쳐 난해하기로 소문난 바바의 『문화의 위치』(*The Location of Culture*)를 완독했고,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역시 난잡한 문체로 이름난 스피박의 『탈식민이성비판』(*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을 비롯하여, 그의 다른 저작, 『교육기계 안의 밖에서』(*Outside in the Teaching Machine*)와 『지구화 시대의 미학교육』(*An Aesthetic Educ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도 읽었다. 그리고 2016년, 이 결과의 일부를 역시 『인문논총』에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단순히 탈식민주의 이론을 문학 작품에 적용하는데 머물지 않고, 이론으로 채 파악되지 않는 텍스트의 면모를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이론과 실제 작품 사이의 대화를 모색함으로써, 네 편의 논문은 각자의 방식으로 탈식민주의 이론이 세계문학 이해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역으로 세계문학이 탈식민주의 이론을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지 밝히고자 힘썼다. 여러모로 부족한 결과물이지만, 이 점만큼은 애써 자부하고 싶다. 각자 마련한 초고를 두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공동 작업을 거쳐 완성된 네 편의 논문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규범으로서 ‘형식’?

— D. H. 로런스의 「이 회화 작품들에 대한 소개」와
몇몇 후기 저작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읽기

이 논문의 목적은, 20세기 영국 소설가 로런스(D. H. Lawrence)가 탈식민주의 논의에 수십 년 앞서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당시 벨(Clive Bell)의 『예술』(*Art*)과 프라이(Roger Fry)의 『췘잔』(*Cézanne*)에 보이는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을 다루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그의 에세이 「이 그림들에 대한 소개」(“Introduction to These Paintings”)를, 유럽중심적인 규범으

로서 ‘의미 있는 형식’을 제시하는 당시 주류 모더니스트 미학이론에 대한 패러디로 파악하였다. 이때 바바의 ‘문화적 차이’라는 개념과 가야트리 스피박의 서발턴 논의 등, 탈식민주의 이론에 어느 정도 기댔지만, 이론의 단순한 적용이 아니라, 이 둘 사이의 대화를 모색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의 의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의미 있는 형식’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형식주의가 이것을 유럽중심적인 규범으로 제시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지금의 로런스 수용 문제—즉, 로런스가 당대의 모더니스트들과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보이는 탈식민주의적 요소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를 시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로런스가 탈식민주의 이론을 ‘대리보충’했다고 가정하면서, 로런스 당시 형식주의에 대한을 모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를 발판으로, 앞으로 로런스가 동시대 모더니스트들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접근했는지, 그때 탈식민주의 이론이 어느 정도 유용한지, 그리고 이 이론의 도래를 예견한 로런스가 당대 모더니스트는 물론, 탈식민주의 이론에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등, 여러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어질 것이다.

2. 「존 게이의 『폴리』

— 젠더, 인종, 그리고 제국의 다양한 정체성의 진동」

18세기 영국 극작가 존 게이(John Gay)의 『거지 오페라』(*The Beggar's Opera*)의 후속작 『폴리』(*Polly*)는 런던이 아닌 서인도 제도를 배경으로 하여 여성 주인공 폴리의 서인도 제도 내 모험을 그리고 있다. 폴리 외에도 변장, 흥내대기를 통해 다양한 정체성을 만들어어나가는 여러 인물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극은 가야트리 스피박의 관점에서 중층결정된 젠더, 국가, 그리고 인종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한다. 이 글은, 호미 바바의 모방 개념에 비추어 식민지 환경 내에서 새롭게 생성될 수 있는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 결과, 첫째, 게이 시대에 앞서 정체성이 인종, 젠더, 국적 등의 이분법적인 범주의 차이와 동일성에 의해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상태에서 재구성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밝힌다. 둘째, 이 글은 이렇듯 정체성의 근간을 흔들며 다변화를 이룬 게이들의 성취를 인정하는 데서 더 나아가, 모방이 식민 공간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점검함으로써 이것이 지니는 의미와 함께 그 한계에 대해 성찰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이곳은 제가 생각한 것과 딱 들어맞지 않네요」

— 쿣씨의 『포』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남성 공간 재현과 전유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스피박(Gayatri Spivak)의 『포』(*Foe*) 비평을 바탕으로 수잔이라는 여성인물이 남성의 공간을 반복적으로 재현할 때 발생하는 공간 전유의 문제를 살피고 있다. 제국주의와 공간에 대한 사이드(Edward Said)의 견해를 들여옴으로써 작품이 여성주의와 탈식민주의가 연속적 서사 공간을 점유할 수는 없다는 스피박의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즉, 스피박의 『포』 비평에서 다루지지 않았던 제국주의와 공간, 그리고 공간 재현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남성의 공간을 여성이 재의미화 하는 가운데에 여성과 제국주의가 공모하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첫 번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 의의는, 가부장제에서 주변인인 수잔의 글이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데이라는 계급적, 인종적 타자를 적극적으로 전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여성주의가 ‘여성’의 타자성에만 몰두할 때에 또 다른 타자를 전유하는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제국의 로마 광장에서 소말리아 서발턴 여성의 역사 말하기 — 이시아바 쉐고의 『아두아』에 나타난 독백을 중심으로」

이 논문의 목적은 소말리아계 이탈리아 여성 작가 이시아바 쉐고(Igiaba Scego)의 『아두아』(*Adua*)를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의 서발턴 여성 논의로 조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논문은 소말리아인 여주인공 아두아를 스피박의 관점에서의 서발턴 여성으로 간주하고, 이탈리아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연상케 하는 로마 광장에서 아두아가 행하는 독백에 주목하였다. 그럼으로써 이 논문은 『아두아』가 서발턴 여성의 목소리가 묵살되었다는 스피박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음을 지적하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짚은 기존 비평에 더해, 이 소설이 서발턴 여성의 중층결정으로 인한 젠더 문제와 신식민주의의 동시적 작동을 문제시한다는 점을 밝힌다. 나아가 이 논문은 아두아의 서발턴리티와 함께, 그녀의 동시대적 독백이 들리지 않고 있다는 데 논문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탈리아의 식민주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광장에서 베르니니의 코끼리 조형물을 두고 이루어지는 아두아의 독백은 묵살된 서발턴 여성의 이야기와 역사, 저항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 논문으로 『아두아』가 서발턴 여성의 목소리에 대한 가능성을 연다는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유두선

